

## 주한 외교단 초청 리셉션

- 인사말 -

**“외교관 1인이 100만 대군보다 더 중요하다”**

응고 외교단장 내외 등 참석자 여러분 반갑다. 날씨가 좋다. 한국국민들이 여러분을 환영하는 마음이 날씨로 나타난 것 같다. 녹지원 정원이 마음에 드는지 몰라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사물놀이 공연을 보며 몇몇 대사와 대사부인들은 리듬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반응을 보이는데 내 짐작에 공연을 좋아하는구나 싶다. 어떤 분들은 아름답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사물놀이는 한국의 대표적인 장단이다. 한국에 왔다 갔다고 얘기하려면 사물놀이를 즐기고 익숙해지기를 바란다.

한국사람과 한국의 초등학생들은 발맞춰 걷는 훈련을 할 때 서양음악에는 발을 잘 맞추지 못하지만 사물놀이에는 발을 잘 맞춘다. 그만큼 익숙하다. 마치고 나면 한 대목 시범을 보이려고 했는데 가버렸다. 다행히. 2년 반 남짓 15나라 정도를 방문하면서 외국의 여러 지도자를 만났다. 처음 2-3번 다닐 때 환영받고, 평가 받을 때는 내가 잘나서 좋은 평가가 나온 줄 알았는데 여러 차례 가보면서 나보다 방문국의 한국 대사와 직원들이 밤낮없이 잠 안자고 준비해 좋은 평가와 성과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한국에서 그동안 수많은 외국 지도자들의 방문을 맞았는데 그 때마다 내가 방문하는 나라의 우리 대사관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듯이 한국에 파견된 대사와 직원 여러분이 우리 대사만큼 수고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 정상 방문과 회담 등 많은 외교 관계가 있는데 상호 파견, 주재하는 외교관의 노력이 거기에 뒷받침하고 국가 간 상호관계가 증진되고 국제적 질서도 발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교관을 존경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한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끔 정치와 군대의 역할을 생각해본다. 전쟁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하는 사람들이지만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외교관들이고 막상 전쟁이 나면 죽는 것은 군인이다. 그런 점을 많이 생각해본다. 그런 관계가 갖는 의미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과 저 사이에 중요한 것은 전쟁을 막아야 하는 책임은 여러분들 손에 달려 있고, 여러분들이 전쟁을 결정할 수도, 막을 수도 있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외교관 1인이 100만 대군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옛날에 들었지만 이 속담이 가지는 의미와 또 다른 의미에서 외교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힘 중에서 ‘신의 뜻’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또 ‘인간의 존엄과 가치’라고 하는 인권의 가치가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한다고 생각한다.

3가지 중에 어느 것이 더 높고 강한지 확신을 갖지 못한다. 어떤 사람은 신의 뜻이 더 위에 있다고 하고, 어떤 이는 국가이익이 중요하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인권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치를 직업으로 하고, 외교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적 보편성이 아닐까 싶다.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그리고 평화와 자유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

언제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면서도 마음 속에서 때때로 모순을 느낄 때가 있다. 세계 보편 가치 즉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 평화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와 국가 이익이라는 이 사이에서 때때로 충돌되는 모순을 느끼면서 갈등할 때가 있다. 정치를 하고 책임 있는 지위에 있다 보니 이 모순과 갈등이 개인의 양심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직책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 고민스럽기도 하다. 외교관이라는 직업을 생각하면서 내가 갖는 이런 모순과 갈등과 그로 인한 고뇌를 외교관들도 그대로 갖고 있겠다고 생각해봤다. 사회운동을 하다가 정치를 하고 점차 큰 책임을 갖게 되면서 느낀 것은 ‘참 생각하는 대로 안되는 게 너무 많다’ 는 생각을 자주 한다.

여러 나라를 다니며 위대한 영웅의 역사를 보면서 어떤 위인도 자기의 사상과 포부를 실현시킨 사람은 없고, 어떤 사상도 세상의 변화와 진보를 완결시킨 사상을 아직 발견 못했다. 그러나 또 이 시점에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 매번 진보와 변화가 있었던 때 시기마다 거기에는 또한 사상이 있었고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고, 영웅이 있었다. 완결시킬 수 없어도 우리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목표를 향한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지만 아울러 그 목표를 가지고 환경과 조건을 변화시키는 끊임없는 투쟁의 과정이 정치하는 사람이나 외교하는 여러분에게나 똑같은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제 생각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께 단순하지만 어려운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한다. 전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우리가 막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계평화를 반드시 우리의 힘으로 꼭 실현시켰으면 좋겠다.

한 국가, 한 민족의 입장에서는 위대한 역사로 기록되는 그런 역사라 할지라도 다른 민족 입장에서 볼 때는 결코 위대하거나 행복하지 않는 역사의

기록이 전쟁이다. 지금까지 한 국가 민족에게는 영광스런 전쟁이었을지 모르나 세계평화, 세계 인류의 존엄과 가치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위대했던 전쟁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저는 그 점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외가 없진 않지만 모든 전쟁은 다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내걸고 이뤄졌고 또 영광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도 명분과 가치로 포장될 수 있는 전쟁은 거의 없다. 아주 극히 소수 예외가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디까지가 압제에 저항할 권리, 어느 수단까지가 압제에 저항할 정당한 권리로 허용되는지 정말 그것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어떻든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쟁을 막고 평화를 실현해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책임이다. 그런 책임을 함께 가지자고 여러분께 제안하고 싶다. 편안하게 담소나 나누자고 모셔놓고 무거운 얘기한 것 같아 제 마음도 무겁다. 이제 무거운 얘기 좀 접어놓고 여러 가지 재밌는 대화 나누면서 좋은 시간 함께 보내시면 고맙겠다. 한국의 미래에 대해 자신을 갖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 대해 조금 부족하다고 느낀 점이 있다. 인종적 다양성이 부족하고 그 점에 대해 한국민들 사이에서 공감대가 이뤄진 미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제 임기동안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에 대해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문제제기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자리엔 한국의 경제, 예술, 문화를 대표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 다양한 교류, 개방된 사회로 갈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다. 미처 아직 제도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았지만 알프레도 응고 대사(주한 외교단장, 주한 엘살바도르 대사) 같이 10년쯤 계셨던 분은 아예 한국 국적으로 강제로 옮기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오래 오래 한국에 머물러주시면서 한국을 사랑해주시기를 바란다.